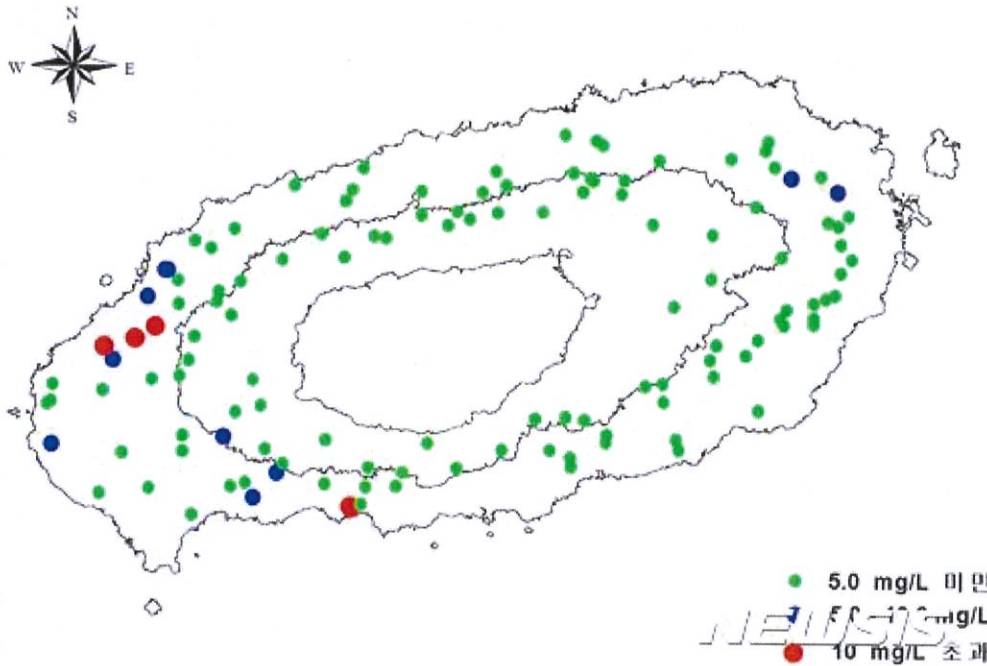


인쇄하기 | 목록 | 달기

제목	제주도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... '취수량 허가' 등 추진
분야	지방

조회수	246
게시일자	2020-06-01 11:36:00



[제주=뉴시스] 강정만 기자 =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.

이 대책은 세부과제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472km² 내외로 확대지정 고시해 난개발 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사설지하수 취수 허가량 감량 및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 취수량을 5.64% 감량하고, 22공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.

또 제주도 전역에 지하수 감시·관측망을 지난해 2650곳에서 올해 34%가 증가한 3561곳으로 늘려 구축하는 방안,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.

도는 하지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시 관리구역 내 지하수 개발제한으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.

또 취수 허가량 감량도 인구증가와 개발사업 증가로 용수 수요가 날로 늘고 있음에 따

라 민원인의 저항이 있다고 보고, 공공관리에 대한 관리 점검 강화와 지하수 보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.

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물 수요증가, 오염원 증가 등 물 환경변화로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의 88.6%가 되고 있고,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초과해 개발하고 있음에 따라 이 대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jm@newsis.com

[🔍 인쇄하기](#) [📖 목록](#) [▶ 닫기](#)